

여수시, UN기후변화협약 총회 유치 준비 순조

시의회 유치 지원 조례 제정
환경부 타당성 조사 용역 착수
서울시장·경기지사 등 잇단 지지 서명
여수시, 100만인 서명운동 등 붐 조성

'2022 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이하 COP28) 여수 유치가 힘을 받고 있다. 최근 여수시의회가 COP28 유치위원회 지원 조례를 제정한 데 이어 정부는 타당성 조사 용역을 착수했다.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경기지사 등 지지 서명도 잇따르고 있다.

7일 여수시와 여수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최근 '여수시 2022 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 유치위원회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이 조례는 백인숙·문갑태·나현수·강현태·고희권·이찬기·이상우 의원 등이 공동 발의했다.

조례 주요 내용은 COP28 유치위원회의 유치 활동에서부터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 사업, 홍보, 심포지엄, 강연회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유치위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는 근거도 담았다. 시장이 총회 유치를 위해 범시민 참여를 유도하고 시책을 발굴해 추진해야 한다는 조항도 마련했다.

정부도 COP28 유치를 적극적이다. 최근 기획재정부가 심사를 통해 국제행사로 승인한데 환경부는 대외경제연구원에 타당성 조사 용역을 의뢰했

다. 앞서 지난 2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는 6월 서울에서 열리는 '녹색성장'과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P4G) 정상회의' 때 COP28 여수 유치의 당위성을 알리는 방안이 보고됐다.

당사자인 여수시는 COP28 유치 붐 조성에도 앞장서고 있다.

지난해 시민사회추진위원회와 유치위원회를 구성·발족했고, COP28 여수 유치 실행계획을 수립해 시행에 들어갔다.

COP28 여수 유치의 국가계획 반영과 유치 선점을 위한 청와대·환경부 등을 상대로 유치 필요성을 설득하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경기지사는 유치 지원을 약속했다. 전남 22개 시장·군수협의회도 COP28 여수 유치를 지지했다.

SNS를 비롯한 100만인 온·오프라인 서명운동에 들어갔고, 차량부착용 홍보 스티커 및 전단 배포 등 시민을 대상으로 홍보 활동에 나섰다.

권오봉 여수시장은 지난 2일 시장실에서 COP28 유치위 홍보분과 위원들을 만나 격려했다. ECO-PLUS21과 여수청년발전협의회 자원봉사자 등으로 구성된 홍보위원들은 100만인 서명운동을 위해 SNS는 물론 기관·업체를 방문하는 등 맹활약하고 있다.

여수시는 코로나19가 진정되면 COP28 유치 기원 읍면동 릴레이 시민결의대회를 시작으로 남해안 남중권 유치 선포식을 열 계획이다. 남해안 남중권 10개 시군 지역순회 자전거 캠페인과 버스기공



권오봉 여수시장이 지난 2일 COP28 여수 유치 서명운동을 하고 있는 유치위원회 홍보분과 위원들을 격려했다. (여수시 제공)

연도 펼친다.

권 시장은 "한국이 개최지로 최종 확정되면 COP28은 국가 차원의 행사가 될 것"이라며 "오는 11월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리는 COP26에 참가해 여수 유치의 당위성을 설파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 시장은 또 "세계가 주목하는 여수선언의 가치 실현과 국가·미래 비전인 해양관광휴양도시 여수에서 반드시 COP28이 열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COP28은 대륙별 순회 원칙에 따라 2022년에는 아시아 태평양권에서 열릴 예정이다. 2021년 총회에서 아시아-태평양권 개최국으로 한국이 확정되면 국내 유치 도시를 정한다. 여수시를 중심으로 순천, 광양, 고흥, 구례 등 전남 5개 시군과 진주, 사천, 남해, 하동, 산청 등 경남 5개 시군은 COP28 남해안 남중권 유치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유치를 나섰다.

/여수=김청화 기자 chkim@kwangju.co.kr

여수~거문항로 여객선 운항 재개 '줄리아아쿠아호' 선령 연장 마무리



지난 1일부터 중단됐던 여수~거문항로의 여객선 운항이 7일부터 재개된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은 여수~거문항로 여객선 '줄리아아쿠아호'의 선령 연장 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7일부터 운항을 재개했다.

여수와 거문도를 오가는 줄리아아쿠아호(228t·정원 296명)는 1995년 건조돼 지난 1일 선령이 25년으로 만료됐다.

여수해수청은 지난해부터 선사를 상대로 대체 여객선을 확보할 것을 요구했지만, 선사 측은 내부 사정을 이유로 새 여객선을 투입하지 못했다.

결국 여수해수청은 지난 1일부터 여수~거문항로의 운항을 일시 중단하고, 거문~녹동간 여객선을 1일 1회 왕복 운항했다.

이 때문에 1시간50분이면 거문도에서 여수를 갈 수 있었지만, 대체 항로는 5시간 이상 소요돼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여수해수청은 한국선급의 협조를 받아 줄리아아쿠아호의 선박검사를 신속하게 진행했다. 선박관리평가 등을 사전에 준비해 7일 만에 선령 연장 절차를 마치고 운항을 재개하게 됐다.

/여수=김청화 기자 chkim@kwangju.co.kr

여수시, 돌산갯 품질 향상 4억5000만원 조기 집행

여수시는 지역 대표 특산품인 돌산갯의 명성 유지와 품질 향상을 위해 전용 비료 지원사업 등 6개 사업에 4억5000만원을 조기 집행했다고 7일 밝혔다.



여수시가 돌산갯 품질 향상을 위해 6개 사업에 4억5000만원을 조기 집행했다.

여수시는 돌산갯 재배농가와 갯김치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돌산갯 재배에 적합한 전용 비료, 연작 피해 예방과 지역 증진을 위한 토양개량제, 농촌 노동력 절감을 위한 동력 파종기·운반기·농약방제 드론 등 농기계를 지원했다. 또 브랜드 이미지 향상을 위해 고품질 규격 생가 묶음피와 출하용 포장재, 소비자 선호형 갯김치 포장재도 지원했다.

이는 돌산갯의 품질 규격화를 통해 브랜드 이미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이다.

여수 특산품인 돌산갯은 돌산읍과 화양면 1220 농가에서 연간 약 3만3000t을 생산, 305억원(농가당 평균 2500만원)의 매출을 올리는 고소득 작물

이다. 돌산갯김치를 생산하는 405개 식품제조업체와 즉석판매업체는 연간 1만t을 김치로 가공해 670억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여수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외부활동이 크게 줄면서 흡소풍·택배를 통한 돌산갯김치의 매출이 평년에 비해 1.5배 이상 증가하고 있다"며 "돌산갯 재배농가에 필요한 자재 등을 조기 지원해 고품질 돌산갯 생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여수=김청화 기자 chkim@kwangju.co.kr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설치 확대...30개 동 지원

여수시는 농산물의 상품성을 높이고 출하조절로 농가소득 증대에 도움이 되는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설치 사업을 확대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여수시는 올해 1억60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9.9㎡ 규모 소형 저온저장고 30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과수·채소 등 원예농산물 재배면적 2ha미만 농가다. 대상자로 선정된 농가는 사업비 600만원 중 50%를 지원받게 된다.

여수시는 지난 2월 소도시 읍면동을 통해 사업신청서를 접수받고 심사를 완료해 지난달 여수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열어 30농가를 확정했다.

보조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부실공사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공모를 통해 전문시공업체 4곳을 선

정했다. 여수시는 사업지원 대상 농가와 시공업체를 대상으로 저장고 설치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농가와 시공업체간 상호 계약을 통해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여수시 관계자는 "소형 저온저장고는 농가가 가장 선호하는 시설"이라며 "농산물 상품성 향상과 출하 조절을 통해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여수=김청화 기자 chkim@kwangju.co.kr

월 10만원 저축시 10만원 더 적립 '청년 희망디딤돌' 참여자 추가 모집

여수시가 성실하게 일하는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 희망 디딤돌 통장' 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7일 여수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청년이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10만원을 추가로 적립하는 사업으로, 3년 만기 때 720만원을 수령하게 된다.

지난 1월 참여자 55명을 선정했으며, 이달 10일까지 19명을 추가 모집한다.

신청자격은 여수시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39세 이하(1980년 3월17일~2002년 3월16일 출생) 청년이며, 최근 180일 이내 90일 이상 근로 경력이 있어야 한다. 또 월 평균 근로소득이 200만원 이하로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면 참여할 수 있다.

참여를 원하는 청년은 여수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의 구비서류를 참고해 기한 내 인구일자리과(진남스포츠센터 1층)에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여수시 관계자는 "많은 청년들이 이번 사업을 통해 구직, 창업, 결혼, 주거, 학자금 상환 등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여수=김청화 기자 chkim@kwangju.co.kr

신세계안과

10인의 안과전문의

분야별 진료

노안 백내장

스마일 라식·라섹

녹내장

당뇨 망막병증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눈모양빌딩 ● 신세계안과 1566-9988

광주보청기 난청센터

보청기

무료체험·출장

직접 체험 후 결정!!

- ✓ 잠음없이 깨끗한 소리
- ✓ 웅웅~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362-3336
광주 돌고개 2번출구 대형약국 3층